

노동의 기원

윤형*

1. 서론

사람들은 한편으로 일하기 원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일에서 해방되고 싶어 한다. 노동을 하면서 이런 긴장이 끊임없이 우리를 맴돈다. 또한 사람들은 매일 일을 하면서 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어려움에 시달린다. 이런 어려움은 우리의 일의 즐거움을 빼앗는다. 마침내 노동은 ‘어려움, 고통’이라는 단어와 동의어가 된다. 동시에 그 어려움은 그 일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킨다. 이제 노동은 본질적인 의미와는 상관없이 삶을 짓누르는 짐이 되고 말았다. 무엇보다 육체 노동이 주는 어려움 때문에 육체노동을 회피하고 정신노동을 선호하는 현상이 생기게 된다.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육체노동의 차별이라는 부정적인 현상이 생기기도 한다. 이것은 다양한 사회적인 부작용을 유발시킨다. 이제 노동은 인간이 과거에 언젠가 지은 ‘죄의 결과’라는 생각이 우리의 인식에 새겨진다. 더는 노동은 떠안고 싶지 않은 애물단지가 되어 버렸다. 그러다보니 자신의 노동에 대하여 긍정적인 사고를 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 왜 이런 인식이 우리에게 생겼을까?

사람은 일하지 않고 살 수 없다. 더구나 작금의 사회에서 노동은 그야말로 삶 그 자체와 연결되어 있다. 더 나아가 그것은 인간의 근본적

* 장로회신학대학교 강사, 구약학

인 목적론과도 직접 관련되어 있다. 동시에 우리 주위의 삶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회 문제는 바로 노동 문제와 직접 연관되어 있다. 또한 이 문제는 단지 생활과 관련된 피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즉, 심층적으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존재론적인 질문과 연관되어 있다. 결국 이것은 인간의 노동의 패러다임 문제이다. 이것이 변화되면 노동에 대한 시각이 전환되고 그 환경이 변화되며, 궁극적으로 노동의 본래 의미뿐만 아니라 작업자 자신의 올바른 자아를 되찾을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지적인 바와 같은 부정적인 노동관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의 본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과연 노동의 근본적인 성격은 무엇인가? 자연히 이것은 ‘노동의 기원’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노동은 언제, 어디서, 왜, 생겼는가? 사람은 왜 노동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당연히 제기된다. 이것을 알아야 노동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다. 이에 본 논문은 노동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고대 세계와 구약 성경에서의 노동의 기원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별히 성경 본문에서는 세상과 인간의 기원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창세기 원 역사(1-11장)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더 세부적으로는 노동의 기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본문으로서 창세기 3장 16-19절, 창세기 2장 5절, 15절과 창세기 1장 26-28절을 주석하고 해석하고자 한다.

2. 노동의 정의

노동의 기원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노동이 무엇인지 그 정의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넓은 의미에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노동이란 물질적, 정신적 산물의 창조, 생산, 변환, 분할과 그 활용에 관련된 일련의 연속적인 절차를 수행하는 동작이다.¹⁾ 말하자면 노동이란 노동

주체가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당면 과제를 수행하는 각각의 행위를 의미한다. 이른바 작업자의 목적 지향적인 육체적, 정신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노동에 대한 객관적인 정의이다. 그러나 이런 중립적인 의미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노동은 각 사회에서 부정적으로 정의, 인식, 평가되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이 여러 나라들의 노동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서도 증명된다: 희랍어 “ponos”(당나귀의 짐), 라틴어 “labor”(짐을 지고 비틀거림, 쓰라린 고통, 병), 중세 고독일어 “arbeit”(쓰라린 고통), 불란서어 “travail”(중세 라틴어, tragaltare-말의 다리를 묶음) 혹은 러시아어 “rabota”(고대 교회 슬라브어인 rabu-노예) 등.²⁾ 그런데 노동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평가는 일반적으로 힘든 육체노동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노동은 일반적으로 하층민들에게 부과된 육체적이며 고생스런 행위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그 낱말은 고통, 고난 그리고 무거운 짐 등과 동의어가 되었다. 이런 사회적인 배경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이 극단적으로 분리되면서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육체노동을 회피하기에 이른다. 그래서 고대 헬라 시대 이후 노예의 일(*opera servilia*)인 육체노동은 자유인의 일(*opera liberalia*: 학문, 예술 및 국가 공직)에 비해 아주 저평가되었다. 이처럼 노동의 기원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운 매우 부정적인 편견과 배경을 갖고 있다.

3. 고대 세계에서의 노동

그렇다면 먼 과거 속의 고대 세계에서는³⁾ 노동을 어떻게 생각하고

1) REFA, *Methodenlebre des Arbeitsstudiums*, Teil I (München: Hanser, 1973), 14.
 2) M. D. Chenu, “Art. Arbeit,” J. Ritter, Hg, *Historisches Wörterbuch der Philosophie* I (Darmstadt: Wiss. Buchges., 1971), 480-482.
 3) 여기서 고대 세계는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 및 그리스 로마 세계를 가리킨다.

있었을까? 이를 통해 우리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노동관의 뿌리를 파악할 수 있다. 즉, 그 근본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갖고 있는 작금의 노동 인식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실제로 고대 세계의 노동관은 현대의 노동관에 깊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고대의 노동관은 그 당시의 인류학을 반영하는데, 그것은 인간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규정하는 인간 창조의 근거에 대한 질문과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그 대답은 사회적이고 철학적이면서 신학적인 판단에 근거한다.

우선 고대 동방 세계에서 노동에 대한 질문은 다음 질문과 관계가 있다. 왜 인간은 일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다시 더 근본적인 물음으로 이어진다: 왜 인간이 창조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 설형문자로 된 본문들은 한 목소리로 분명하게 답한다: 인간은 일하기위해서만 창조되었는데, 말하자면 그 목적은 신들로 하여금 그들의 어려운 노동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이다.⁴⁾ 봉사로서의 인간 노동은 그동안 신들이 해왔던 힘든 노동 부담을 완하시킬 뿐만 아니라 그 신들의 생계 및 수발까지 책임진다. 이를 통해 바빌로니아 종교 전통에서는 인간과 신들 사이에 불가분의 의존적인 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신들에게 인간이 꼭 필요했다. 왜냐하면 인간이 힘들게 일한 결과로 얻은 음식료로 그들의 수발을 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굶든지 아니면 신들 스스로 일해서 자신들의 생계를 챙겨야 했었기 때문이다. 이런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과연 누구일까? 수메르(Sumer)와 악카드(Akkad)의 창조 기사들에 따르면 사람의 자리는 신들 대신에 수행하는 일에 의하여 특징져진다. 그 신화들은 신들이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살았던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한다: 그들의 삶은 전혀 신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참한 삶이었다.⁵⁾ 그래서 수메르 본문에서의 인간 창조는 신들

4) G. Pettinato, *Das altorientalische Menschenbild* (Heidelberg: Carl Winter, 1971), 21f.

5) G. Pettinato, *Das altorientalische Menschenbild*, 21f.: 신들의 삶은 전혀 신적이지

의 힘든 노동에서의 해방에 기여한다. 실제로 신들 자신도 고역에 종사하면서 신음하고 있었다. “신들이 인간들이었을 때 그들은 질고를 겪어 졌으며 광주리를 지고 다녔다(즉, 부과된 강제 노동).”⁶⁾ 그래서 신들이 안식을 취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간이 창조되어야만 했다. 아카드인들 역시 수메르인들처럼 노동을 인간 창조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페티나토(G. Pettinato)는 수메르 자료에는 부정적인 노동관이나 그에 대한 저주를 볼 수 없다고 한다. 수메르인들은 노동을 긍정적으로 보았는데, 이와는 반대로 아카드인은 위에서 언급한 인간의 창조 목적에 반발했으며, 또 노동을 참을 수 없는 부담으로 이해했으며 따라서 아주 염세적인 인생관을 갖고 있었다.⁷⁾ 그들에게 인생은 항상 질고가 가득한 강제 노동과 고뇌와 연결되어 있으며 그 증거로 아트라하시스(Atramchasis)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마미(Mami)가 우리를 창조했을 때
그들(신들)은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 영구적인 고통을 안겨 주었다.⁸⁾

두 민족에게 인간 창조는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었으나 제각기 서로 다른 노동관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는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며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구체적으로 제기한다. 메소포타미아 전승에 의하면 인간의 인간됨과 신들의 신됨은 인간의 자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질서 안에서 인간과 신이 갖고 있는 각각의 기능에 달려 있다. 그 핵심 위치에 인간의 실제적인 과제인 노동이 자리하고 있다. 말하자면 신들은 일을 할 필요가 없고, 반면에 인간은 그들을 위해 일을 해야만 한다.

않고 그야말로 비참한 현실이다.

6) W. v. Soden, *Bibel und Alter Orient*, Altorientalische Beiträge zum Alten Testament, (Berlin: de Gruyter, 1985), 206.

7) G. Pettinato, *Das altorientalische Menschenbild*, 25.

8) G. Pettinato, *Das altorientalische Menschenbild*, 29.

한편 고대 이집트에서는 노동과 노동자를 표현하는 낱말은 ‘나르다, 운반인’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이집트 고왕국(주전 2665-2155년)에서는 노동이라는 것이 *ḫt*(머리 위에 용기를 올려놓은 앉아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을 상형문자로 표시한 것임)로 표현된다. 고왕국에서는 실제적인 의미에서 노예는 없었는데, 왜냐하면 팔려다거나 가차 없이 이용되면서 최소한의 권리도 갖고 있지 못했던 일단의 사람들이 전혀 언급되지 않기 때문이다.⁹⁾ 이집트는 파라오라는 신과 같은 존재인 왕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 집권 체제인데, 왕이라는 신적 존재와 그 이외의 인간으로 구성된 계급 사회이다.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차별이 그다지 심하지 않았던 고왕국과 달리 중왕국(주전 1991-1650년)에서는 육체노동을 경멸스럽게 여겼다. 중왕국의 사회 구조는 고왕국의 그것과 다르다. “이제부터 우선 전쟁 혹은 상거래 등으로 취득하게 된 외국인들로만 구성되어 왕의 수족이 된, 즉 애굽인의 소유물이 된 노예들이 존재하게 되었다.”¹⁰⁾ 동시에 자영 농민이 중왕국 시대동안 지은 빚 때문에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분리는 더 심해졌다. 이로 인해 생기는 부정적인 노동관은 불가피했다.

고대 오리엔트 세계와 비교하여 헬라 세계는 어떤 노동관을 갖고 있을까? 헬라 세계의 노동관은 사회 전체가 노예 제도에 깊이 뿌리박고 있기에 노동에 대한 평가는 근본적으로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노예 제도의 발전은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분리를 심화시켰으며 마침내 양자를 배타적인 대립 관계로 만들어 버렸다. 그 제도의 확산은 노동에 다가 부자유와 품격 저하라는 인장을 새겨놓았다. 노동은 노예와 여자들의 몫이 되었으며, 이에 반하여 여가(*σχολή*)는 자유로운 남성들의 몫으로 돌아갔다. 이제 육체노동은 자유 시민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것

9) A. Eggebrecht, u. a., *Geschichte der Arbeit. Vom Alten Ägypten bis zur Gegenwart* (Köln: Kiepenheuer & Witsch, 1980), 43.

10) A. Eggebrecht, u. a., *Geschichte der Arbeit. Vom Alten Ägypten bis zur Gegenwart*, 70.

이 되었는데, 그 노동은 자유민인 그의 원래 목적에 모순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희랍적인 이상은 직업적인 행위 없이 살 수 있는 자유로운 유복한 완전한 시민인데, 왜냐하면 이들만이 폴리스(πόλις)에서 자신의 시민 의무를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또한 저급한 비예술적인 육체노동이 공중을 위하여 약간의 유익을 가져다 준다고 인정하지만, 그것을 일종의 노예적인 것으로 무시한다.¹¹⁾ 이것은 다음과 같은 표현에 반영되어 있다: 노동은 희랍적인 어휘로 각기 사회적이며 윤리적인 관점에 따라 수고와 부담 혹은 인생에서 단지 불가피한 기본적인 것으로 설명된다.¹²⁾ 그 이전 세대인 헤시오드(Hesiod)는 육체노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과¹³⁾ 반대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육체노동을 주로 노예의 일이라고 보았다. 여기서 육체 노동의 저평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은 노동에 수반되는 물질적인 압박이다. 어려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모든 경제 분야에서 노동력으로 노예들이 투입되었다. 그러므로 희랍 사회는 ‘노예 사회’라고 표현할 수 있다.¹⁴⁾ 그래서 플라톤은 상인이나 수공업자는 진정한 시민의 권리를 소유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¹⁵⁾ 그래서 그는 노동자와 농부들을 자신의 이상적인 국가를 구성하는 데 참여시키지 않았다.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11) F. Hauck, “Art. Arbeit,” T. Klauser, Hg., *RAC I* (Stuttgart: Hiersemann, 1950), 586.

12) G. Kittel, ed., *ThWNT II* (Stuttgart/Berlin/Köln: Kohlhammer, 1957), 632: 견유스토아적인 인기 철학이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말한 것처럼, 헤라클레스의 삶은 인간의 목적 규정의 모범적인 성취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봉사 가운데 힘든 노동이기 때문이다.

13) 헤시오드는 노동을 명예스럽고 신에게 칭찬받을만한 일 즉 부유의 원천으로 찬양하였다. 자신의 ‘일과 날들(Werke und Tage)’라는 작품에서 그는 성실한 노동의 의미를 강조한다. “노동은 아무런 부끄럼을 일으키지 않는 반면, 노동을 회피하면 부끄러운 일이다.” Hesiod, “Werke und Tage,” *Sämtliche Werke Theogonie. Werk und Tage. Der Schild des Herakles* (Leipzig: Dieterich, 1938), 303-313.

14) H. Cancik, Hg., *Der Neue Pauly. Enzyklopädie der Antike II* (Stuttgart: Metzler, 2001), 624-627.

15) J. Ebert u. a., *Die Arbeitswelt der Antike* (Leipzig: Koehler & Amelang, 1983), 192.

인간의 목적과 육체적 노동은 서로 모순된다고 본다. 그래서 수공업자에게는 완전한 인간됨을 부여하지 않았고 마침내 노예는 단지 물건에 불과하게 되었다. 육체를 써서 일해야 하는 사람은 정치 영역에서 배제되었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는 미덕을 쌓을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¹⁶⁾ 이처럼 고대 헬라 세계에서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은 날카롭게 분리되었다. 하지만 노예 제도 외에 그렇게 된 원래 배경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 인식의 바탕에 있는 철학적인 신관이 결정적이다. 신은 최고 단계의 이론적인 학문의 대상이다. 플라톤에게 있어 인생에서 최고 단계는 ‘사고(이데아: Idea)’이다. “플라톤주의의 모든 파생 형태들에게 공통적인 것은 인간의 실제 자아이면서 동시에 세계 질서의 원칙인 세계 정신으로 영혼의 정신성, 불멸성과 비발생성에 대한 확신이다.”¹⁷⁾ 이것은 우선 정신적인 것에 무게를 두게 되는데, 그 안에서 진정한 인간됨이 실현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은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이 예리하게 구분되는 노동관을 만들어낸다. 이것은 플라톤과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아리스토텔레스에게도 적용된다. 그에게도 철학은 신(神) 인식을 목표로 한다: “최고의 것은 최고 존재에 대한 지식인데, 이것은 감각적인 경험 속에서 만나는 존재와는 다르게 움직이지 않는, 그리고 물질에서 분리된 존재이어야 한다.”¹⁸⁾ 신은 인간이 추구해야 할 순수한 사고로 규정되기 때문에 진정한 인생은 순수한 사고를 목표로 한다. 하지만 그럴 경우 노동은 그것에 방해가 되는데, 그것은 존재 목적의 궁극적인 실현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희랍 사회와 마찬가지로 로마 제국에서도 노동의 성격은 노예 제도

16) K. H. Schekle, “Art.: Arbeit,” *TRE* 3 (1978), 622: 우리는 수작업적인 노동에 대한 강한 비판적인 담화를 플라톤(*Leg* 741 E), 아리스토텔레스(*Pol* 1,5;3,5), 그리고 키케로(*De Officiis* 1,42,150f.)의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다.

17) J. Halfwassen, “Art. Platonismus,” *RGG*⁴ VI (Tübingen: Mohr Siebeck, 년도), 1385. 1390.(보충)

18) P. Aubenque, “Art. Aristoteles,” *RGG*⁴ I (Tübingen: Mohr Siebeck, 년도), 730.(보충)

라는 사회규범에 의하여 규정된다. 로마에서는 자유와 부자유의 차이는 사회적인 입장과 사람의 노동 조건을 위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노예는 대부분 보호받지 못하고 그 주인의 자유재량에 맡겼다. 일반적으로 노예는 음식이나 의복이 부족하지 않아도, 특히 농업의 경우 광범위하고 강도 높은 통제 아래 놓였으며, 부분적으로 그들은 족쇄를 맨 채 일해야만 했고 노예 감옥에 수용되었으며 가혹한 징계를 받았다. 특히 로마의 농업 경제에서 사슬에 묶인 노예는 주후 1세기 말까지 널리 확산되어 있었던 현상이었다. 이 모든 것은 계급 대립을 초래하여 사회 내부에 고착되었으며 불안과 소요를 수반한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졌다. 노예 노동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수공업 노동도 최소한도의 위상만을 갖고 있었다. 마침내 노동의 가치는 어떤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노동관의 대표자인 키케로(주전 106-43년)는 모든 수공업자는 불결한 동업 조합에 속한다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갖고 있었다. 귀인의 작업장이 무엇을 간직할 수 있겠는가?¹⁹⁾ 그의 표현은 주목할 만한데, 그것은 경제적이며 사회적인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던 당시 지배 계급의 견해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상류층이 노동자를 무시하는 정치적이며 사회적 표현으로 우리는 로마 제국 내에서 직업 분화 및 극단적인 계급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⁰⁾ 그러므로 수공업자는 상류층을 위해 비품격적인 일을 수행하는데, 수공업적인 행위는 진정한 인간의 목적을 가로 막기 때문이었다. 그에 따라 수공업자는 정치 이론에서 사회적 정파로서 시민권에서 배제되었다. 희랍처럼 이것은 로마 정치관의 특징이기도 하다. 희랍인과 로마인에게 여가란 학문적인 작업과 예술을 즐기기 위한 불가피한 전제조건이다. 여가라는 행운은 빈둥거림이

19) W. Grimm, "Art. Arbeit," O. Betz, Hg., *Calwer Bibellexikon I* (Stuttgart: Calwer Verl., 2003), 106-109; M. Prell, *Armut im antiken Rom. Beiträge zur Wirtschafts- und Sozialgeschichte* (Stuttgart: Steiner, 1997), 148.

20) A. Eggebrecht u. a., *Geschichte der Arbeit. Vom Alten Ägypten bis zur Gegenwart*, 108.

아니라 생업의 자유에 있다. 그래서 한가로움은 자유인들에게만 부여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이 분리된다. 이런 점에서 육체노동에서 해방된 여가는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을 구분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제로 여가는 직업 분화의 산물로서 지배 계층에 속한 자들이 누리는 의미 있는 문화 활동의 전제 조건이기도 하며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확실하게 분리시키는 요소이다. 따라서 수행하는 노동의 종류에 따라 노동과 안식의 부조화가 생긴다.

4. 본문 주석과 해석

지금까지 서술한 다신론적이고 인본주의 세계관의 노동관과 다른 성경적인 노동의 기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창세기에서 노동과 관련된 다음 성경 본문을 주석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고대 및 현대 시대를 불문하고 부정적인 노동관의 근거인 ‘고통’의 원인을 파악하고, 둘째 그런 다음 힘들어진 그 노동의 근원이 과연 무엇인지 거슬러 올라가 파악해야 하며, 셋째, 또 다시 그 노동의 원초적 근원이 무엇인지 알아야 노동의 기원의 실체를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4.1. 노동의 어려움: 창세기 3장 16-19절

본문은 성경에서 노동의 어려움에 대한 원인론적인 성격을 가진다. 이를 바탕으로 사람들은 노동이 죄의 결과라는 선입견을 갖게 되고 이에 따라 부정적인 노동관을 갖게 된다. 본문을 관찰해 본다.

3:16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צָרָה**)을 크게 더 하리니 네가 수고(**עָמָל**)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3:17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הָאָרֶץ)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בְּעִבּוּד)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3:18 땅(הָאָרֶץ)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3:19 네가 흠(חַטָּא)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흠(חַטָּא)이니 흠(חַטָּא)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선악과 사건 이후 하나님은 여인에게 출산의 고통을 크게 더하고 남편에게 종속시킨다(16절). 이어 창세기 3장 17절은 남자의 노동이 어려워진 중요한 이유를 언급한다. 하지만 제일 관심을 끄는 부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담이 직접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창조될 때 그 재료로 취해졌으며 또 그가 경작할 땅이(הָאָרֶץ) 아담 대신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땅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낱말이 서로 다른데, 일반적인 의미로서의 땅(אֲדָמָה)이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근원이며 노동의 대상인 경작지(הָאָרֶץ)가 저주를 받는다. 이에 사람의 노동 조건이 질적으로 변한다. 그러므로 저주는 인간에게 의도되고(창 2:5) 규정된(창 2:15) 원래의 노동 그 자체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노동 영역에 떨어진다. 여기서 아담에 대한 직접적인 저주 내용을 담고 있는 창세기 3장 17절에 대한 히브리 본문을 칠십인 역과 비교해본다.

MT: אָרֶץ הָאָרֶץ בְּעִבּוּד תֵּאָכֵל כָּל יְמֵי חַיֶּיךָ

LXX: ἐπικατάρματος ἡ γῆ ἐν τοῖς ἔργοις σου ἐν λύπαις φάγη αὐτήν
πάσας τὰς ἡμέρας τῆς ζωῆς σου

우선 수동 분사형 ‘아루라’(אָרֶץ)를 통해 땅이 저주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한다. 여기서 칠십인역의 ‘에르고이스’(ἔργοις)라는 표현에 주목하

자. 그것은 히브리어 ‘바이부레카’(בעברה), 즉, ‘너로 말미암아’와 상응되는데 ‘너의 행위로 인해’로 번역된다. 그러나 칠십인역(심마쿠스 역과 테오도티온 역과 함께)의 ‘에르가’(εργα)가 17-19절의 연관성이 암시하듯 힘든 노동과 관련 있는지는 의문이다. 어쨌든 칠십인 역은 그 당시의 헬레니즘의 노동관에 영향을 받은 유대적인 이해에 따라 노동을 부정적인 생각과 연결시킨다.²¹⁾ 원래 땅(אֲדָמָה)의 생산력은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한다(창 1:11). 여기서는 그 축복이 저주를 통해 부분적으로 상실된다. 하지만 저주는 땅(אֲדָמָה) 전체 및 사람의 본질인 먼지(עָפָר)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אָדָם)이 경작할 땅(אֲדָמָה)에게만 해당된다. 동시에 여기서 사람에 대한 땅의 저항이 서술되는데, 그것은 더 이상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다스림에 반발한다(3:18). 이제부터 고통(עֲצָבוֹן/이차본)이 인간 노동에 추가된다. 이것이 부정적인 노동관의 핵심이다. 여기서 어근 ‘에체브’(עָצַב)는 ‘무엇이 누군가를 슬프게 만드는 것, 즉 고통’을 의미한다.²²⁾ 이제부터 이것이 여자와(16절) 남자의(17절) 노동을 특징짓는다. 여자의 출산의 고통과 땅에서의 남자가 행할 어려운 육체노동이 바로 그것이다. 저주받은 땅(אֲדָמָה) 이야기를 나중에 그 변화를 기대한 라멕이 인용한다(창 5:29).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저주는 인간 노동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처럼(창 1:28) 저주의 말씀 역시 구체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동시에 이것은 땅에 대한 저주를 반전시킬 수 있다고 암시한다. 왜냐하면 선악과 사건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주권 교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것을 의미한다(창 3:22).

21) 저자, *ThWNT Bd 8-η*, (Stuttgart: Kohlhammer, 19?? 보충), 640f.: 이로써 노동에 대한 헬레니즘적인 유대교의 부정적인 견해는 성경 본문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킨다.

22) 이 단어는 창세기에서 단 세 곳에서만 나온다(창 3:16,17;5:29). 이차본(עֲצָבוֹן)은 칠십인역(LXX)에서 “λύπη”로 번역되는데 그 뜻은 ‘슬픔, 근심, 고민’이다. 참고, J. Lust, E. Eynikel, and K. Hauspie,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Septuaginta Part II*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6), 285; 방석중, 『창세기 역주』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2011), 209.

그렇다면 잘못된 그 주권의 상태를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면 하나님의 저주를 되돌릴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그렇다면 노동은 그 자체가 정말 벌이나 저주인가? 그 질문은 잘못 되었는데, 땅의 경작은 본래부터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인간 규정이었기 때문이다(창 2:5.15). 그리고 사람이 일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 자신이 세상의 창조 과정에서 작업자의 모습으로 일을 했다(창 1장). 이것은 인간의 노동에게 하나의 본보기가 된다. 그러므로 노동 그 자체는 전혀 저주의 결과가 아니다! 저주는 사람(אָדָם)로서의 אָדָם과 노동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 조건(תְּנָיָ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노동의 본질 자체는 변하지 않았고 다만 그 상황이 변화되었다. 창세기 3장 18절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땅의 반발을 나타내고, 19절에서는 땀이란 표현이 노동의 어려움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하나님의 벌은 외적인 노동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 노력을 언제든지 무력하게 만들고 연속적인 실패로 위협받는 노동에서 파생되는 내적 고통에도 해당한다.²³⁾ 어쨌든 그 노동은 저주 아래 있지 않았다.²⁴⁾ 원래 사람의 노동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이다. 이것은 창조의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에 근거한다. 하나님은 그가 지은 모든 것을 보시고, “보라! 아주 좋다 ‘토브 므오드’(טוֹב מְּוֹד).”라고 하셨다. 결국 계명을 넘어서서 창조 질서(창조자-피조물)를 위반하여 하나님에 인간에게 고통을 주셨으며,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깨진 관계를 상징한다.²⁵⁾ 어쩌면 그 고통은 새로운 관계를 다시 만들어 제거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이것은 나중에 유평파리적인 종말론의 주제가 된다. 아무튼 저주는 타락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다. 그는 지금까지의 생활공간(에덴

23) A. Weiser, *Glaube und Geschichte im Alten Testament* (Göttingen: Vandenhoeck U. Ruprecht, 1961), 244.

24) A. Richardson, *Die biblische Lehre von der Arbeit* (Frankfurt a. M.: Anker, 1953), 20; H. W. Wolff, *Anthropologie des Alten Testaments* (München: Kaiser, 1973), 191.

25) J. Scharbert, *Der Schmerz im Alten Testament* (Bonn: Hanstein, 1955), 137

동산)²⁶⁾ 벗어나 이제 더 어려워진 생활조건을 예상해야 한다. 가인은 아벨을 살해하여 아담과 다르게 그 땅(הָאָרֶץ)에서 저주를 받는다(창 4:11-12). 아담보다 그가 땅에서 받는 고통은 더 심하다. 그에 대한 인간의 반응으로서 다양한 노동 활동과 직업(창 4:17-24)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본문에서 저주의 결과로 나타나는 노동에 수반되는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기술의 진보로도 볼 수 있다.

4.2. 인간의 노동: 창세기 2장 5절, 15절

앞에서 우선 노동에 수반된 어려움의 원인을 알아보았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로챈 행위에 대한 저주의 대가다. 하지만 그 저주는 땅(הָאָרֶץ)도 아니고 흙(עָפָר)도 아니고 경작지(הָאֲדָמָה)에 임했다. 그렇다면 이것이 노동의 실체인가? 이에 대해 성경은 고역인 노동 이전에 인간의 본질이 노동이라는 것을 말해주는데, 따라서 그것을 알려주는 창세기 2장 5절과 15절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다.

2:5 여호와 하나님이 땅(הָאָרֶץ)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הָאֲדָמָה)을 갈(לַעְבֹד)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2:15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동산(עֵדֶן)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לַעְבֹד) 지키게(לְשׁמֹרָה) 하시고

MT: וַיִּקַּח יְהוָה אֱלֹהִים אֶת־הָאָדָם וַיִּנְחֵלֵהוּ בְּגֵן־עֵדֶן לַעְבֹדָהּ וּלְשׁמֹרָהּ:

사람의 노동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아바드’(עָבַד) 동사가 나타난다

26) G. J. Wenham, *Genesis* (Dallas: Word Books Pub., 1987), 61. 웬함은 에덴을 ‘즐거움, 기쁨’이란 개념(렘 51:34; 시 36:9)과 연결시킨다. 참고, 이희학,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구원행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103.

(창 2:5). 그 의미는 ‘경작하다, (토지를) 갈다’로서 수작업적인 노동을 말한다. 이 부정사 형태는 사람의 일과 관련하여 세 번 사용된다(창2:5, 15; 3:23).²⁷⁾ 하지만 이 동사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노동과 관련해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 인간 아담은 땅(הָאָרֶ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경작지에²⁸⁾ 대한 그의 근본적인 의존성을 강조한다.

그 땅이라는 낱말 속에 그의 과제, 그 존재됨, 인간의 근원이 숨겨져 있다(עֲפָרָא מִן־הָאָרֶץ).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동의 기원 문제이다. 우선 2장 15절은 네 개의 동사를 갖고 있다: לָקַח, נָטַח, עָבַד, שָׁמַר. 여기서 행위의 주체는 하나님이며 사람은 그로부터 과제를 부여받는다. 아담 스스로 자신의 일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이 구절은 노동의 기원 진술이다. 그것은 창세기 3장 17절에서 보듯이 어려워진 노동과는 분명히 구분된다. 하나님이 아담을 노동 현장으로 이끄는 2장 8b와 15a는 부분적으로 중복된다. 그러나 그것을 표현하는 동사들은 서로 다르다: 8절에서는 ‘바야셈’(בָּיַסְתָּ, and he placed), 그리고 15절에서는 ‘바야니헤후’(בָּיַנְתָּהּ)가 사용된다.²⁹⁾ 후자(여근은 ‘누야흐’ נָטַח)는 ‘하나님이 사람을 내려놓았다, 또는 그를 안식하게 하였다.’를 의미한다. 여기서 왜 서로 다른 동사들이 사용되었을까? 이에 대해 야콥(B. Jacob)은 사람이 동산에서 일해야 하지만, 마찬가지로 쉼(사 30:15, נָטַח)과 안식(מָנוּחַ)의 기쁨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한다.³⁰⁾ 그 이외에 그는 하나님 자신이 창조 기사에서 그 모범을 보여준(창 2:2-3) 것처럼 하나님은

27) B. Jacob, *Das Buch Genesis* (Stuttgart: Calwer, 2000), 79: 그는 부정사를 ‘땅에게 봉사하기 위하여(die adama zu bedienen)’라고 번역한다. 이것은 이 부정사를 해석하는 데 색다른 뉘앙스를 준다. 참고, 박종구, 『사람아, 너 어디 있느냐?』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2007), 174; 강사문, 『구약의 자연이해』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81.

28) H. Werner, *Uraspekte menschlichen Lebens nach Texten aus Genesis 2-11* (Göttingen: Vandenhoeck U. Ruprecht, 1971), 14: 여기서 ‘아다마’(הָאָדָמָה)는 침식과 관개로 생산력 있고, 비옥해서 사람이 이용하기에 좋게 된 지층을 말한다.

29) 『개역개정』에서는 두절의 각 동사를 모두 ‘두다’로 번역한다.

30) B. Jacob, *Das Buch Genesis*, 91.

모든 노동이 안식의 축복으로 통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점을 발견해 낸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가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아주 좋더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안식일 계명을 연상케 한다. 바르트(K. Barth) 역시 낙원에서의 노동을 안식일과 연결시킨다: “그의 노동은 허락된 안식일에 누리는 자아 실존의 자유, 기쁨과 휴식을 해치지 않는 최소치이다.”³¹⁾ 나중에 노아는 노동에서 안식의 이런 기쁨을 발견하도록 희망을 구현해야 할 것이다(창 5:29). 그 표현 속에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친밀함과 호의가 보인다. 그러므로 객관적인 의미를 갖는 동사 ‘라카흐’(לָקַח)는 특별한 뉘앙스를 갖게 되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손으로 아담을 이끈다. 하지만 여기서 인간의 강제 노동으로 신을 수발하는 행위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칼빈(J. Calvin) 역시 사람은 게으른 상태가 아니라 원래부터 작업적인 행위를 하도록 규정되었다고 강조한다.³²⁾ 그래서 노동은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지만, 귀찮음과 수고는 원래 그 노동에 속하지 않는다.³³⁾ 선악과 사건 이후의 노동과는 아주 다르게, 동산 안에서의 사람의 노동은 바로 그 점에 근거한다. 낙원 이야기에 대한 수많은 잘못된 수용 표상들에 반하여 낙원에서는 육체적으로 일이 이루어지며, 따라서 그 곳은 단순히 명상 장소가 아니었다고 강조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런 잘못된 표상은 육체노동이 질이 낮고 부정적인 행위가 되었다는 것으로 이어진다. 왜냐하면 이 노동이 단순히 죄의 결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정신적인 것을 즐긴다는 것이 실제로 추구할 가치가 있는 것이 되고, 동시에 이것은 잃어버린 낙원이 회복해야 하는 것이 된다.

한편 2장 5절에서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그 목적이 암시되어 있는데, 그는 땅을 경작해야 한다. 그런 다음 15절에서 이것이 좀 더

31) K. Barth, *Die Lehre von der Schöpfung*, KD III (Zürich: EVZ-Verl., 1970⁴), 289.

32) J. Calvin, *Auslegung der Genesis* (Neukirchen, Kreis Moers: Verl. der Buchh. des Erziehungsvereins, 1956), 33.

33) 앤드루 라우스, 『교부들의 성경주해』, 하성수 역 (왜관: 분도출판사, 2008), 113.
아우구스티누스 또한 에덴에서의 노동을 고통스러운 수고로 표현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언급된다. 왜냐하면 그는 동산의 땅을 경작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기도 해야 한다. 창세기 2장 5절과 같이 사람의 노동과 관련된 ‘아바드’ 동사가 나온다. 그 근본적인 의미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한편 그것은 단순히 ‘다루다, 행하다’를 의미하고, 다른 한편 ‘다른 사람에 의해 야기된 행위’를 표현한다.³⁴⁾ 이것은 ‘(땅을) 갈다 혹은 경작하다’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라틴어 “colere”에 해당한다. 그래서 히브리어 동사 ‘아바드’는 라틴어 동사 “colere”와 같이 ‘(신)을 섬기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예배라는 개념이 거기서 파생되었다고 추측되었다. 이것과 관련하여 베스터만(C. Westermann)은 땅의 경작과 관리는 문화 발전의 기본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땅을 경작하라는 명령은 여기서 문화 명령과 동일하다.’³⁵⁾ 창조 기사와 낙원 이야기를 연결하여 창세기 1장 28절의 두 동사 ‘라다’(לָדָה)와 ‘카바쉬’(כַּבֵּשׁ)는 땅의 ‘경작과 지킴’에서 구체화된다. 이런 점에서 사람의 노동은 다스림의 명령과 연결된다: “그러므로 경작과 지킴은 ‘땅을 다스리다(dominium terrae)’의 진정한 해석이다.”³⁶⁾ 그렇다면 누가 사람에게 땅을 경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는가? ‘누군가에 의해 동작이 야기됨’이라는 개념을 강조하여 리제너(I. Riesener)는 그 질문에 답한다. 야웨가 사람에게 땅 경작이라는 기술을 가르쳐 주었다: “이는 그의 하나님 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다(사 28:23-29).”³⁷⁾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땅을 경작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정확한 지침은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스스로 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거기서 야콥(B. Jacob)은 사람의 본능을 강조한다: ‘아담은 땅을 경작하는 법을 스스로 배우는데,

34) I. Riesener, *Der Stamm עֲבָד im Alten Testament* (Berlin: de Gruyter, 1979), 46.

35) C. Westermann, *Arbeit und Kulturleistung in der Bibel* (München: Kaiser, 1984), 55.

36) G. Liedke, “Von der Ausbeutung zur Kooperation,” E. von Weizsäcker, Hg., *Humanökologie und Umweltschutz* (Stuttgart: Klett, 1972), 45.

37) W. Schrötroff, “Art. Arbeit,” M. Görg und B. Lang, Hgs., *Neues Bibel-Lexikon (NBL)* I (Zürich: Benziger, 1991), 151-154.

이는 그 자신이 그 땅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치 어린 아기가 엄마젖을 곧 찾듯이, 그의 본성이 그를 인도한다.”³⁸⁾

게다가 ‘아바드’는 ‘섬김’을 의미한다. 경작은 땅을 사람의 목적물로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전적인 객체화가 아닌데, 이는 사람의 봉사를 통해 땅에게도 주체적인 성격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바드’에는 경작과 지킴의 상호 보완 관계가 내포되어 있다. 그러므로 노동은 언제든지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 이렇듯 하나님은 인간을 세상에 연대감을 갖도록 했다. 폰라드(G. von Rad) 역시 양자 사이의 강한 의존성을 강조한다: “인간은 땅에서 취해졌다. 따라서 그는 땅에 의존되어 있고, 그 땅은 그에게 어머니와 같은 근거점이며, 인간과 땅 사이에는 창조에 걸맞은 연대성이 있다.”³⁹⁾ 따라서 두 가지 측면은 바로 ‘주권과 봉사’이다. 그러므로 성서적인 관점에 따르면 ‘일한다’는 것은 자연에 대한 지배적인 폭력 행사가 아니라 오히려 땅에 대한 봉사(עֲבָדָה)이다.

4.3. 인간 노동의 원초적 과제: 창세기 1장 26-28절

우리는 앞 단락에서 인간 노동의 실질적인 기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면 그보다 앞선 노동의 기원이 또 있을까? 바로 창조 기사인 1장이 그것을 말해 준다. 이것과 관련해서 특별히 창세기 1장 26-28절을 살펴보고자 한다.

1:26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38) B. Jacob, *Das Buch Genesis*, 91.

39) G. von Rad, *Das Erste Buch Mose/Genesis* (Göttingen: Vandenhoeck U. Ruprecht, 1976), 67.

- 땅(^{אֲדָמָה})과 땅(^{אֲדָמָה})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1: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1: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
 육하고 번성하여 땅(^{אֲדָמָה})에 충만하라, 땅(^{אֲדָמָה})을 정복하라, 바다
 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אֲדָמָה})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
 리라 하시니라.

창조 기사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창조는 남자와 여자로서의 사람 창조이다.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강한 창조 의도를 갖고 있다(26절):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 표현에 하나님의 목적 지향적인 행위가 잘 나타나 있다. 이를 통해 인간의 존재 목적이 정해지며,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지위가 규정된다. 사람의 일은 바로 자연을 다스리는 것인데, 즉, 그는 창조된 세계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지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질서를 유지하며 실천하도록 부름을 받았다.⁴⁰⁾ 그로부터 사람의 모든 일이 파생되며, 그것은 하나님의 이 명령에 근거한다. 이런 점에서 사람의 노동 신학도 이 명령에 근거한다.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 세상에 대한 권력이 이양되었다. 그렇지만 여기서 양자 사이에 주종 관계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인간의 창조와 관련된 고대 오리엔트 본문들은 다음과 같이 통일성 있게 분명하게 말한다. “인간은 일하기 위하여 창조되었다. 즉, 신들을 그들의 어려운 노동으로부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⁴¹⁾ 악카드인들과 수메르인들은 노동을 인간의 창조 목적으로 본다. 아트라하시스 신화(Atramchasis-Epos)의 첫째 판은 세 단계로 나누어 자세하게 인간의 창조 과정을 묘사한다.⁴²⁾ 여기서 신들의 강제 노역은 직접 인간의 창조로 이어진다.

40) G. von Rad, *Das Erste Buch Moses*, 39.

41) G. Pettinato, *Altorientalisches Menschenbild*, 21f.

42) G. Pettinato, *Altorientalisches Menschenbild*, 27f.

내가 피를 모으리라
그리고 뼈를 지으리라
내가 룰루(Lullu)를 생명으로 불렀노라,
그의 이름은 ‘인간’이라
내가 그 룰루(Lullu)-인간을 창조하였노라
그 어깨 위에 신들의 고역을 얹어놓으리라
그래서 그 신들이 안식을 얻도록⁴³⁾

그러나 성경적으로 노동은 인간 창조의 주된 목적이 아니며 하나님
이 부담했던 강제 노역의 전가도 아니다. 에누마-엘리쉬(Enuma-eliš)에
따르면 인간은 단지 하나의 물건일 따름으로서 신들에게 종속된 부속품
에 불과하다. 그 곳에서는 신과 인간 사이의 주종 관계가 분명히 나타난
다. 수메르와 악카드 창조 문헌들에 따르면 인간의 지위는 그 노동으로
규정된다.⁴⁴⁾ 이런 견해는 인간이 수행할 강제 노동의 근거가 되며, 이를
통해 인간의 삶은 전체적으로 ‘부담과 고역’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간의
노동은 외적인 물리적 압박에 의해 각인된다. 하지만 창조 기사에서
인간은 그의 형상의 대리인으로 나타난다. 그의 과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피조물을 다스리는 일이다. 다른 피조물과 비교할 때 인간에게는
특별한 역할이 맡겨졌다. 하지만 사람 역시 자연 속의 한 피조물이다.
따라서 그는 자연과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하지만 그의
본성은 자연 자체가 아니고, 오히려 그 자연을 대상으로 자신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그는 삶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이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다. 한편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에 참여하면서, 그의 명령의 수탁

43) W. Gunther Plaut, et al., *Die Tora in jüdischer Auslegung, Genesis I* (Gütersloh: Kaiser, Gütersloher Verl.-Haus, 1999), 80: “Lullu”는 인간을 의미하는 수메르 낱말이다.

44) H. P. Müller, *Glauben, Denken und Hoffen. Alttestamentliche Botschaften in den Auseinandersetzungen unserer Zeit* (Münster: Lit-Verl., 1998), 16.

자로서 그 밖의 다른 모든 피조물 가운데 두드러진다. 정치적인 기능으로서 세상에 대한 인간의 주권은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에 근거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과의 차이 또한 분명하다. 즉, 하나님은 창조자이고 그는 피조물이다.

한편 창조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노동 행위의 결과인데, 그 이유는 아무 것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창조 행위를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의 자유는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자신의 고유의 역사에 참여시켰다는 점에 그 근거를 갖고 있다. 그 자유는 문화 명령을 창조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근본 토대이다. 바르트(K. Barth)는 하나님과 사람의 자유를 ‘나’와 ‘너’라는 관계로 규정한다: “이것은 바로 창조자로서 인간에 대하여 자유로운 하나님이며, 동시에 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존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에 대하여 자유로운 사람이다.”⁴⁵⁾ 하지만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의 위탁 명령과 그 질서에 연관되어 있다. 본호퍼(D. Bonhoeffer)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자유와 연결시킨다: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 땅위에 자신의 형상을 창조했다는 점에서 그 사람이 창조자와 버금가며 또 그가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한다.”⁴⁶⁾ 그러므로 사람의 노동은 창조 신학적인 관리 계약이다: “왜냐하면 자연을 문화의 땅으로 가꾸고 그 과정에서 창조 질서에 적합한 생명 관계성을 보존해야 하는 인간의 노동은 성서 신학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그에게 맡겨진 생명의 공간인 ‘땅’이라는 영역 안에서 이해되기 때문이다.”⁴⁷⁾ 그러므로 자유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로운 세계 경영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전 전제이다. 동시에 이 자유는 하나님과 사람의 노동의 기본적인 토대이다.

45) K. Barth, *Die Lehre von der Schöpfung*, 220.

46) D. Bonhoeffer, *Schöpfung und Fall* (München: Kaiser, 1989), 58.

47) A. Obermann, Hg., *Von der Umwelt zur Mitwelt auf dem Weg zu einer umfassenden Gerechtigkeit. Beiträge zur Schöpfungsverantwortung und zur Lokalen Agenda 21*,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 1998), 15.

5. 결론

우리는 지금까지 다신론적인 세계관 아래서의 노동관과 성경적인 노동관을 살펴보았다. 전자에서는 신들과 인간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특징이며 신들은 인간의 노동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다. 거기서 핵심은 노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의 전가’이다. 그런데 그 고통의 원인은 아무도 모른다. 다만 노동의 결과일 따름이며 그 해결의 길은 없다. 또한 인본주의적 세계관에서는 육체노동이 정신노동에 비해 절대적으로 저평가되는 관점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런 세계에서 육체노동자는 자기의 인격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동시에 한 직업과 다른 직업사이의 지배 개념이 강하게 깔려 있다. 작업자의 인격이 타자에게 결박된 양상이다. 이런 곳에서는 자유가 숨쉬기 어렵고 창조적인 사고를 갖기 어렵다. 이것은 정신과 육체가 보이지 않게 날카롭게 분리된 결과이다. 동시에 노동과 안식도 일부에 편중되어있다. 신들의 위치에 앉은 존재에게는 자유가, 인간의 위치에 처한 존재에게는 부자유가 주어진다.

이에 반해 성경적인 노동관은 바탕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 이것은 한 작업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노동과 안식의 자유로운 조화를 누릴 권리를 갖고 있다(창 2:3). 또한 노동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에 관계없이 본래부터 사람에게 본질적 **소여**라는 것이다. 즉, 양자의 조화로운 관계이다. 실제로 육체노동자도 정신노동을 수반하지 않고는 일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양자의 분리는 불가능하다. 양자는 상하 지배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 관계이다. 그리고 성경은 노동의 어려움의 원인을 확실하게 하나님의 저주에 돌린다(창 3:17; 5:29). 이 고통의 원인이 사람의 ‘운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고통을 완화시키고 제거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노동의 기원은 야웨 하나님(יהוה אלהים)이다.

<주요어>

창조, 노동, 주권, 자유, 안식.

<Key Words>

Schöpfung, Arbeit, Herrschaft, Freiheit, Ruhe.

* 접수일 2012년 1월 30일, 수정일 2012년 3월 5일, 게재 확정일 2012년 3월 5일

참고문헌

- 강사문, 『구약의 자연이해』,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 박종구, 『사람아, 너 어디 있느냐?』,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2007.
- 방석중, 『창세기 역주』,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2011.
- 앤드루 라우스, 『교부들의 성경주해』, 하성수 역, 왜관: 분도 출판사, 2008.
- 이희학,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구원행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 Bonhoeffer, D., *Schöpfung und Fall*, München: Kaiser, 1989.
- Calvin, J., *Auslegung der Genesis*, Neukirchen/Kreis Moers: Verl. der Buchh. des Erziehungsvereins, 1956.
- Cancik, H., Hg., *Der Neue Pauly*, Enzyklopädie der Antike II, Stuttgart: Metzler, 2001.
- Ebert J., u. a., *Die Arbeitswelt der Antike*, Leipzig: Koehler & Amelang, 1983.
- Eggebrecht, A., u. a., *Geschichte der Arbeit. Vom Alten Ägypten bis zur Gegenwart*, Köln: Kiepenheuer & Witsch, 1980.
- Gunther Plaut, W., et al., *Die Tora in jüdischer Auslegung, Genesis I*, Gütersloh: Kaiser, Gütersloher Verl.-Haus, 1999.
- Halfwassen, J., “Art. Platonismus,” *RGG*⁴, Tübingen: Mohr Siebeck, 년도.
- Hauck, F., “Art. Arbeit,” T. Klauser, Hg., *RAC I*, Stuttgart: Hiersemann, 1950.
- Jacob, B., *Das erste Buch der Tora. Genesis*, Stuttgart: Calwer, 2000.
- Joachim Ritter, et, al., *Historisches Wörterbuch der Philosophie I*, Darmstadt: Wiss. Buchges., 1971.
- Liedke, G., “Von der Ausbeutung zur Kooperation,” E. von Weizsäcker, Hg., *Humanökologie und Umweltschutz*, Stuttgart: Klett, 1972.
- Lust, J., E. Eynikel, and K. Hauspie,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Septuaginta Part II*,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6.
- Müller, H. P., *Glauben, Denken und Hoffen*, Alttestamentliche Botschaften in den Auseinandersetzungen unserer Zeit, Münster: Lit-Verl., 1998.
- Obermann, A., Hg., *Von der Umwelt zur Mitwelt auf dem Weg zu einer umfassenden Gerechtigkeit. Beiträge zur Schöpfungsverantwortung und zur “Lokalen*

- Agenda 21* ",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 1998.
- Pettinato, G., *Der altorientalische Menschenbild und die sumerischen und akkadischen Schöpfungsmythen*, Heidelberg: Carl Winter, 1971.
- Prell, M., *Armut im antiken Rom. Beiträge zur Wirtschafts- und Sozialgeschichte*, Stuttgart: Steiner, 1997.
- REFA, *Methodenlehre des Arbeitsstudiums Teil I*, München: Hanser, 1973.
- Richardson, A., *Die biblische Lehre von der Arbeit*, Frankfurt a. M.: Anker, 1953.
- Riesener, I., *Der Stamm 727 im Alten Testament. Eine Wortuntersuchung unter Berücksichtigung neuerer sprachwissenschaftlicher Methoden*, BZAW 149, Berlin: de Gruyter, 1979.
- Scharbert, J., *Der Schmerz im Alten Testament*, Bonn: Hanstein, 1955.
- Schrottroff, W., "Art. Arbeit," M. Görg and B. Lang, eds., *Neues Bibel-Lexikon(NBL) I*, Zürich: Benziger, 1991.
- Von Rad, G., *Das Erste Buch Mose/Genesis. Genesis(ATD2-4)*, Göttingen: Vandenhoeck U. Ruprecht, 1987.
- Von, Soden, W., *Bibel und Alter Orient, Altorientalische Beiträge zum Alten Testament*, Berlin: de Gruyter, 1985.
- Weiser, A., *Glaube und Geschichte im Alten Testament*, Göttingen: Vandenhoeck U. Ruprecht, 1961.
- Wenham, G. J., *Genesis 1-15*, WBC 1, Dallas: Word Books Pub., 1994.
- Werner, H., *Uraspekte menschlichen Lebens nach Texten aus Genesis 2-11*, Göttingen: Vandenhoeck U. Ruprecht, 1971.
- Westermann, C., *Arbeit und Kulturleistung in der Bibel*, **Erträge der Forschung am Alten Testament**, München: Kaiser, 1984.

<초록>

노동의 기원

윤형

(장로회신학대학교 강사)

본 논문은 다신론적인 세계관 아래 노동관과 성경적인 노동관을 고찰하여 힘들게만 인식되는 노동의 근본적인 기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작금의 노동관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본질적인 노동 패러다임을 새롭게 규정하고자 한다. 우선 양자는 노동이 인간의 근본 규정이라는 사실에는 일치하나 그 근원에 대한 인식에는 차이가 있다. 전자에서는 신들의 고통 경감 차원에서 인간이 창조되고 그들의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을 지워 노동은 곧 고통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부각된다. 동시에 신과 인간 사이에 노동과 안식의 부조화가 생긴다. 이밖에 신과 인간사이의 수직적인 지배 관계가 특징이다. 이에 반해 성경에서는 인간의 노동이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 대한 다스림(Dominium Terrae)의 대리권 행사에서 기원한다. 이와 함께 인간은 하나님의 일과 안식을 모범삼아 노동과 안식의 균형을 취할 것을 강조한다. 또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수평적인 의존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인간의 노동은 세상에 대한 다스림에서 파생한 것으로서 그 특징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인간 노동의 기원과 그 고통의 원인이 야웨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게 되어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을 발견하게 된다.

<Abstract>

The Origin of Work

Lecturer. Hyung Youn
(Presbyterian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the view of work under the polytheism and the biblical theology, and the origin of work of both sides, which is felt hard, and to find the identity of our present working and to establish the new paradigm of the work. At first it corresponds to both sides, that the work is an essential aim for mankind. However the opinion of its origin is different from each other. In the former case mankind has been made for their gods, in order that they need not to work hard. So man must take the heavy burden on his shoulder in behalf of them. This gave the negative image to the work: 'it is a pain in itself.' This brings about the inharmony of Work and Rest between gods and man. In addition it results in the hierarchical relation between them. On the contrary man's work in the bible derives from the representative right of control over the world, which God permits him. It emphasizes, that man has to take the balance of Work and Rest after the model of God's. Besides one knows, that there is a horizontal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man on the basis of Imago Dei. Therefore man's work derives from Dominium Terrae(control over the earth). In result one knows that the origin of man's work and its difficulty is in the hand of the Lord God. Finally one finds the new paradigm of work through it.